

'국보순회전:모두의 곁으로' 장수 온다

가을밤 물들일 정음농악 판굿 펼쳐진다

장수역사전시관서 13일~12월 1일 신라 금관총 금관 등 전시

장수군은 장수역사전시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 주최,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울림)과 공동 주관으로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는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과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문화향유 저변확대 및 문화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한 '국보·보물의 지방순회전시'이다.

장수군은 총 6개의 패키지 전시 중 역사 교과서에 수록된 신라 금관총 금관 패키지 전시에 선정돼 금관(국보)을 비롯해 금하리피장식(국보), 이사지왕명갈(국보급) 등을 오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장수역사전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한다.

더불어 같은 기간 장수군에서 확인된 신라 무덤인 춘송리고분군 출토 유물전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12일 오후 3시에는 장수역사전시관 1층 야외무대에서 순회전시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이사지왕갈 검무쇼와 한복패션쇼(주리화한복), 김소영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특별전시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순회전시이며 이를 통해 지역민에 문화향유의 기회가 제공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전희 컬렉션' 등 주요 전시도 장수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국립박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역사전시관에서는 순회전과 더불어 전시기간 내에 명사특강과 전통놀이 체험, '장수와 신라'라는 주제의 학술대회 등이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역사전시관 누리집(<https://museum.jangs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포스터

정음천변 어린이 축구장서 27일 '정음시립농악단 정기공연' 개최

정음시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정음천변 어린이 축구장에서 시립농악단의 정기공연 '정음농악 판굿과 개인놀이'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가을밤을 배경으로 호남 우도농악의 독특한 장단과 멋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호남 우도농악에서만 볼 수 있는 오백장굿과 오방장굿을 볼 수 있다. 오방장굿은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방향으로 방울진을 만들고 풀면서 이어가는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호남우도농악 특유의 장쾌한 에너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부포놀이, 설장구, 소고놀이 등 개인 놀이마당도 다양하게 펼쳐져, 관람객들이 정음농악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정기 공연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음se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을 통해 전국 1회, 전북권역 2회의 재방송이 예정되어 있어 더 많은 관객들에게 정음농악의 우수성과 멋스러움을 알릴 예정이다. /정음=김대환 기자



정음시립농악 정기공연 포스터

국립민속국악원, 25일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야기 손님에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으로, 관객들은 다니엘 린데만이 바라보는 한국 문화와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연주를 통해 국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 다니엘 린데만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국악연주단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진행은 전주MBC 목서은 아나운서가 진행, 공연 1시간 전부터 공연장 로비에서 차와 다과를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과 카카오톡 채널(국립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공연 포스터

한국전통문화전당, 이종덕 방짜유기장 특별전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1~29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2024년 일품(一品)공예 특별전'으로 이종덕 방짜유기장의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전통공예를 대표하는 '방짜유기'를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종덕 방짜유기장의 △유기그릇 △광과리 △정 △화종 등 22종 모두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시와 함께 전통 방짜유기의 제작 기술을 이어가고 있는 이종덕 장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2024 일품공예 작가

시상식'도 병행된다.

이번 전시는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 2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도영 원장은 "방짜유기는 눈썹을 마치로 두드려 형태를 만드는 전통공예기술로 손끝으로 두께를 느끼며 만들어내는 고된 작업이자 모든 정성이 들어간 전통 공예품"이라며 "특별전을 통해 전통공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음성 기자

중견작가 집중 조명 기획전시

서학동사진미술관, 22일까지 '초(超): 녹슬지 않는 길'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4 우수기획전시 지원사업'에 선정된 서학동사진미술관(대표 이일순, 객원 큐레이터 한준)이 오는 22일까지 지역 중견 예술가 김경희·김신교·차유림 3인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전시 '초(超): 녹슬지 않는 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학동사진미술관이 지역 예술계에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한 끝에 기획했다. 이는 지역 작가들에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중견작가들의 동시대적 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작가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일순 대표는 "작가들이 창작 활동 외에도 전시, 홍보, 미디어 매체 관리, 아카이브, 도슨트 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미술관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공동 기획을 맡은 한준 객원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중견 작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정비하고, 과거의 현재의 작품을 조화롭게 배치해 자신의 예술적 성장과 변화를 포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초(超): 녹슬지 않는 길'전은 서학동사진미술관(전주시 서학동 소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관람할 수 있다.

특히 21일 오후 3시에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창작지원팀(063-230-744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서학동사진미술관 '초(超): 녹슬지 않는 길' 전시 포스터



전주대, 전국음악경연대회 개최

전주대학교 음악학과는 오는 28일 전국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훌륭한 음악 재능을 보유한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전주대에 따르면 피아노, 현악, 관악, 타악, 작곡 분야에 관심있는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대회는 초등부 I(1~2학년), 초등부 II(3~4학년), 초등부 III(5~6학년),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전주대학교 음악학과에서 열리는 연주 기회가 부여되며, 고등부 입상자는 음악학과 입학 시 장학금도 지급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